

# 건축문화 사랑방

광주·전남·전북 건축사회 신문  
News 2021.5.138호

광주광역시건축사회  
전라남도건축사회  
전라북도건축사회

발행인 : 정인채, 한형민, 박진만  
창간일 : 2009년 11월 10일

GWANGJU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255 T. 062.521.0025 F. 062.528.0026

## 02 시론

건축 개발과 도시시스템의 경계

## 03 종합

사랑에서 \_ 배고픈 돼지  
건축사 Q&A  
건축사 만평

04-05

## 전남 지역 뉴스

전남건축사회, 여수 전남병원과 업무협약 체결  
전라남도, 건축정책 심의조정 역할하는 건축정책위원회 위원 공개모집  
전라남도, 농어촌 빈집 '정비·활용' 동시 추진

06-07

## 전북 지역 뉴스

전북건축사회, 회원사에 설계수탁신고 프로그램 활용 요청  
전라북도, 전국 첫 주거 통합마을 프로젝트 공모  
전라북도 총괄건축가에 '진정 전북대 명예교수' 위촉

08-09

## 광주 지역 뉴스

광주광역시, '광주 도시·건축 선언' 이행 위한 매뉴얼 발표  
광주건축사회, 시청·교육청·경제자유구역청과 연달아 간담회 가져  
광주건축사회, 광주사 관내 경제자유구역에 해당하는 지구단위계획 지침 공지

10

## 설계경기

진도 공립 노인요양시설·장애인체육관 설계공모

11

## 종합뉴스

2021년도 제1회 건축사 자격시험 합격예정자 5월 14일 발표  
국토부, 건축인 양성을 위한 청년 인재육성 사업 기관 모집  
소규모 건축물도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신청 가능해진다

12

## 독자광장

책 소개 \_ 피프티 피플  
한 편의 시 \_ 겨울나무

세상사는 느낌 \_ 인간이 살아가면서 하고 싶은 것을 얼마나 이루며 살고 있을까?

<http://gjkira.kira.or.kr>

건축과 도시, 사람과 자연의 경계를 넘는  
소통과 공유의 장!

건축문화 사랑방을 스마트폰에서도  
구독하실 수 있습니다.  
오른쪽 QR코드로 접속하신 후, 상단 '건축  
문화사랑방'을 클릭하시고 홈페이지에서 열람  
PDF파일을 다운로드하시면 구독 가능합니다.



해당 기고문은 본지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건축 개발과 도시시스템의 경계



**손승광** 논설위원  
동신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  
sskshon@dsu.ac.kr  
·전라남도총괄건축가(현)  
·광주광역시건축위원장(현)

### 도시의 가치

도시에서 건축은 인접하는 건축물이 있고, 건축물들이 모여서 도시를 구성한다. 건축물 하나하나의 권리를 극대화 할 때 도시는 이웃하는 건축 환경을 침해하게 되고, 그 결과는 효율적인 도시, 가치 있는 도시의 정체성을 획득할 수 없다. 도시는 건축물의 집합으로서 외부도시, 다른 나라로부터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가치자원이어서 도시의 정체성을 형성한다. 창조적인 건축물들은 특징 있는 도시를 만들고, <장소마케팅>의 산업자원으로 활용한다.

건축 프로젝트에서 개별 이익을 극대화할수록 인접하는 건축 환경은 이웃에게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한다. 그래서 견제율과 용적률이라는 기준으로 총량을 도시 계획법, 조례, 건축법 등으로 기준을 정한다. 그러나 대지를 활용하는 방법에 따라 이웃하는 건축물에 일조, 조망, 교통, 경관 등의 측면에서 부정적 요인이 높아지고 이를 조절하는 방법은 매우 다양하다.

### 건축기준, 최소기준인가? 최대범위인가?

건축법 기준을 잘 준수하여 얻어지는 결과는 최소한의 기준이다. 왜냐하면, 개발이 허용되는 한도 내에서 경제성에 기반한 건축행위는 건축개발자 입장에서 최대한의 견제율과 용적률을 활용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건축법을 준수함으로 개발자가 아닌, 불특정 다수로 이루어진 사용자의 창조적이고 지속적인 건축과 환경으로서 건축을 하는 데에는 한계가 많다는 것을 결과로서 인식하게 된다.

도시계획법은 물론이고, 건축기본법, 주거기본법, 경관법 등은 건축법의 한계에 대한 반성으로 탄생하였다. 이들 기준은 계량적이거나 지표 기준이 아니다. 더 바람직한 공공성, 사회성, 문화성, 인본주의를 지향한다. 건축법과 도시 관련법에 의한 기준은 행위 허용범위로는 최대기준이며, 이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경계 기준에 해당한다.

### 경제성의 경계, 건축

그 경계선에서 경제성과 사용자의 환경에 대한 가치문제가 매우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다. 그리고 그 경계의 성격과 범위는 그 폭이 매우 클 수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경제성을 추구하는 선택을 하자면, 개발자는 건축사에게 모든 방법을 다 사용하도록 요구하게 되고, 그 주문을 가능하게 해 주는 건축사에게 일이 몰리게 된다. 그렇다 보니, 그 경계를 활용하는 개발자, 그것을 가능하도록 해주는 건축사의 활동이 지속되는 게 건축계의 현실이다. 건축주의 주문을 받아야 하는 건축사의 입장에서 당연히 개발업체의 주문을 잘 받아주는 전문가가 되어야 한다.

이웃하는 건축과 가장 문제가 되는 점은 일조와 조망 그리고 경관 문제이다.

단위 건축물의 일조조건을 극대화하려면, 일조조건이 우수한 남향으로 실의 개수를 늘리고, 평면형을 길게 해서 실내를 밝게 한다. 저층 건축물, 혹은 대지가 넓은 조건에서는 주변에 해를 주는 대상이 없어서 당연히 선택할 수 있다. 그러나 고층 고밀지역에서 충분한 채광과 일조를 위한 설계는 그 뒤편 혹은 주변에 일조 장애와 조망 장애를 유발하여 바로 이웃하는 프로젝트와 '소위 일조권 조망권 분쟁'

의 요인이 되곤 한다. 고층 고밀이 대부분이 되어가는 도시건축에서 햇빛을 많이 받으려는 의도로 결정된 단위평면, 기준층 평면구성의 결과는 그 뒤편에 있는 위치, 인접하는 건축에서는 보다 크고 강한 음영을 만들어낸다. 한쪽이 햇빛을 충분히 받으면서 다른 쪽에게는 그 부담을 감수해 달라는 요구는 있을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프로젝트의 일조조건을 위해서 남향으로 길게 벌리고, 외부공간과 도시공간 볼륨을 최대한으로 활용하려는 시도가 매우 일상적으로 행해지고 있어, 이웃과의 적절한 조화를 이루는 데에 인색해져 가고 있다. 그 이유는 건축주가 자기 고객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주문을 하기 때문이다. 이 주문에 자유로울 수 있는 건축사는 많지 않을 것이다.

### 공생하는 도시, 건축기술의 선택

한편, 현대사회의 인구 변화는 1인 가구 비중이 늘어나면서 소형 주택 비중이 높아졌다. 그러나 소형 아파트에서도 내부공간의 일조조건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판상형 건축물 블록을 길게 늘려, 아파트 블록은 내부공간의 깊이는 얇아지고 건물길이는 더 길어지게 된다. 아파트의 전면길이가 길어지면, 여기에 면한 발코니는 서비스 면적으로 용적률제한 범위에서 제외되어 그 점을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대상이 되었다.

내부 환경에 대한 아파트 구매자들의 선호도를 반영한다는 명분은 얻을 수 있지만, 건물동의 뒤편은 영구 음영과 일조 장애를 유발한다. 이러한 건축물이나 아파트 단지들이 만드는 도시 경관은 소위 <병풍 건축물>로 이루어진다. 판상형의 극단적인 결과는 도시 외관이 병풍을 두른듯한 막혀있는 공간으로 느껴질 뿐만 아니라, 병풍형 아파트의 개발된 면에 입지한 건물동을 제외하면, 바로 뒷줄에 세워지는 아파트의 조망 장애, 뒷면의 영구 음영 부분과, 뒷면에 대한 바람길을 막아서 도시를 열섬으로 만든다. 기계적으로 반복되는 이러한 건물동으로 도시디자인은 획일화된 도시를 만드는 주원인이 되었다.

### 건축의 가치와 경제성의 판단 기준

최근에 업무용과 상업건축의 수요로는 매우 제한적이어서 상업지역에서 주택용도와 이에 준하는 건축을 개발하고자 하는 요구가 많다. 문제는 주택공간이라고 생각되는 내부공간에 충분한 채광과 일조를 위해서 대지 경계까지 최대한 건축물을 위치하게 한다. 고밀도 건축에서는 기준층을 매우 절제하는 볼륨이어야 하나, 반대로 중정을 둔 기준층을 계획하여 건축물의 볼륨을 매우 부풀리려 한다.

도시환경과 경관의 관점에서는 매우 반-도시적 건축물의 탄생을 추구하는 시도들이며 이런 현상이 매우 공격적으로 나타난다. "건축은 대지 조건에서 법적 기준이 허용하는 조건 안에서 창의적으로 할 수 있다"라는 그 주장은 공생하는 도시시스템을 저해하는 출발점이 되기도 한다. 대지 안에서 용적률의 사용을 최대한으로 하여 경제성을 확보하지만, 인접하는 대지와와의 조화, 공동의 이익을 도출하는 계획이어야 한다. 공생하는 도시와 건축설계는 건축물 내부만이 아니라 도시공간으로서 외부도 동시에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건축인들은 그 균형을 지키는 데에 끊임 없는 요구에 직면하고 있다.



**화재에 강하다!**

**준불연가등급**

**DK본 EPS 단열재**

외단열용(2' X 4')  
건축용(3' X 6')  
판별용(나등급)

준불연 DK보드

www.dkboard.kr

DK보드는 건축용은 최적의 무기난연제인 팽창흑연을 비드내에 함침시켜 난연성능이 향상된 소재에 자체개발한 특수 고난연 물질을 도포 마감한 고난연 친환경 준불연 가등급 단열재입니다.

- 준불연재료 공인시험기관 인증
- 열전도율 : 0.032 W/m·k
- 친환경 수성

**DK** | 주대 광 판넬  
| 주디케이보드

사랑에서 \_ 일흔여덟 번째

배고픈 돼지

배부른 돼지와 배고픈 소크라테스는 영국의 사상가인 존 스튜어트 밀(John Stuart Mill, 1806~1873)의 '공리주의(Utilitarianism)'라는 저서에서 유래되었다고 한다. 원문에는 "만족한 돼지보다 불만족한 인간이 되는 것이 더 낫다. 만족한 바보보다 불만족한 소크라테스가 되는 것이 더 낫다(It is better to be a human being dissatisfied than a pig satisfied; better to be Socrates dissatisfied than a fool satisfied)"라고 기술되어 있다. 그리고 그 문장에 대한 분석과 해석은 다양한 각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처럼 심오한 철학사상으로 접근한다면 난해할 수도 있지만 단순히 풀어보면, '배부른 돼지'는 자기중심적인 본능이나 쾌락에서 만족감을 찾는 속물적인 삶에 비유할 수 있고, '배고픈 소크라테스'는 개인적인 고통이 따르더라도 인생의 가치와 사회적 이상을 추구하고 고뇌하는 지적인 삶에 비유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비유를 바탕으로 가끔씩 '배부른 돼지처럼 살 것인가? 아니면, 배고픈 소크라테스처럼 살 것인가?'라는 질문이 우리에게 던져지고 있다.

그 질문에 "배부른 돼지와 같은 삶을 살고 싶다"라고 답하는 이는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현실에서는 배부른 돼지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적지는 않은 것 같다. 업무상 취득한 정보를 이용해 자기 배불리는 데 열중하는 공직자들, 사회적 정의를 수호하기보다는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집단이기주의에 빠져 있는 힘 있는 조직들, 내로남불의 시각으로 남들의 허물만을 문제 삼는 소인배들, 소신도 버리고 자존심도 버린 채 상명하복과 복지부동에 젖어 적당주의와 안일주의로 일관하는 구성원들, 갑질과 울질이 몸에 배어버린 갑과 을, 돈이면 되지 않은 일이 없다고 맹신하는 황금만능주의자들 등이 넘쳐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에 사회적으로 존경받고 추앙할 수 있는 '배고픈 소크라테스'는 좀처럼 눈에 띄질 않는다.

그런데 문득! "배고픈 돼지"와 "배부른 소크라테스"는 없는 걸까?"라는 의문이 들었다. 우문이라는 생각도 들지만, 양극화 현상으로 인해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적 약자가 양산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배고픈 돼지'는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다. 유심히 살펴보면 최소한 삶의 조건도 충족되지 않는 경우를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배부른 소크라테스'도 존재할까? 없지는 않으리라 믿고 싶지만, 그 역시 누구라고 꼭 집어 말할 수가 없다. 평소 존경했던 인물들의 행적과 민낯을 확인하는 순간, 배신감을 느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철학이나 심리학 분야의 많은 학자들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소크라테스에 비유되는 삶을 희망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돼지에 비유할 수밖에 없는 삶들이 훨씬 많이 눈에 띄는 것이 현실이다. 나 또한 배부른 소크라테스는 아니더라도 배고픈 소크라테스라도 되고 싶었지만, 이미 옛나가 버린 지 오래고, 그렇게 살 자신도 없다. 그렇다고 돼지에 비유되는 삶을 살자니 그 역시 내키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심하게는 처참한 생각마저 든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은 '배부른 돼지'들이 명명거리며 사는 세상처럼 보인다. 배부른 돼지와 같은 삶도 쉽게 이루지 못할 세상이 되어버린 것이다.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든 '배고픈 돼지'만은 되지 않기 위해 노력해야 할 판으로 내몰려 버린 것 같다.

자문위원 \_ 서재형 건축사(archiseo@nate.com)

건축사 Q&A

▶ 건축폐기물 '분별 해체 의무화' 시행 (2021. 04. 17. 시행)

- 이제는 철거 도면도 건설폐기물별 도면 작성 필요

건축물의 철거 및 해체를 할 경우에 건설폐기물은 종류별로 분리배출하는 것이 원칙이었으나 공사여건상 그렇지 못한 실정이었다. 건설공사를 함에 있어 기존의 철거 방식은 건축물을 철거 후에 폐기물을 분리하는 상황이었다. 이렇다 보니 공사현장에서 순환골재의 품질을 저하시키는 가연성, 불연성, 내외장재 등과 콘크리트 등이 함께 철거됨에 따라 재활용 골재의 품질이 저하되는 이야기가 많았는데 이제는 선 분리 후 철거를 하여야 한다.

2021년 4월 17일 시행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연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공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설폐기물을 분별 해체를 통하여 분리배출하여야 하는 규정이 신설 시행되었다. 따라서 건설폐기물(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벽돌, 폐블럭, 폐기와,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섬유, 폐벽지, 폐금속류, 폐유리, 폐타일 및 폐도자기, 폐보드류, 폐판넬)을 14개종으로 분리하여 배출함에 따라 철거 시 위와 관련된 설계도서 산출 시 별도의 건설폐기물별 물량산출이 필요하다.

건축사 만평 \_ 정태호 건축사 작 / (주)건축사사무소 영일.필 (광주/건미회)





**이본석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본석**

- 경희대학교 법학과 졸업
- 군법무관 15기 임용
- (현)광주건축사회 법률 자문변호사
- (현)광주광역시교육청 소청심사위원회 위원
- (현)전남지방경찰청 징계위원회 민간위원
- (현)부동산개발협회 광주지회 자문변호사
- (전)영무토건 자문변호사
- (전)광주광역시청 법률지원 자문위원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로 82, 2층  
 T . 062-228-0787~8  
 F . 062-228-0789  
 M. 010-2736-0787  
 E . lbs0787@daum.net

**건축문화사랑** 2009년 11월 10일 창간

**발행처** 광주광역시건축사회  
**발행인** 정인재, 한형민, 박진만  
**창간발행인** 신정철, 김강수, 이성엽  
**역대발행인** 심상봉, 안길진, 국원식, 김남중, 윤문곤, 정명철, 박용목, 전병갑, 강현구, 조연준, 이길환

**초대편집인** 박홍근  
**편집인** 박종호  
**부편집인** 박주현, 임현정, 육광돈  
**자문위원** 서재형, 정명환, 강동영  
**전담기자** 광승국  
**논설위원** 이순미, 신영은, 박신남, 강필서, 이종순, 백재봉, 정영범, 김미영, 정관성, 양우현  
**편집위원** 윤미순, 양창근, 최정미, 김영규, 이원규, 임태형, 정영진, 허만수, 설해순, 오선화

**등록번호** 광주광역시 라00144  
**간별** 월간  
**등록일자** 2010-01-25  
**편집및인쇄** 레이아웃 T. 070-8277-2589  
**광고신청** T. 062)521-0025

## 광고 및 구독신청

건축과 도시, 사람과 자연의 경계를 넘는  
소통과 공유의 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적극적인 관심과 사랑을 바랍니다.

- 후면 전면광고 : 1,000,000원
- 후면 외 전면광고 : 700,000원
- 하단광고 : 350,000원
- 하단1/2광고 : 200,000원

- 구독료 : 20,000원/1년
- 구독료입금계좌  
예금주 : 광주건축사회  
계좌번호 : 신한 131-009-471898

**건축문화사랑 신문**  
T. 062)521-0025~6 F. 062)528-0026

**건축문화사랑** 신문 발전기금을 모집합니다!

- 발전기금 : 1만 원부터
- 후원방식 : 신한 131-009-471898 (예금주 : 광주건축사회)

대광판별	350,000원
대양단열	350,000원
마이다스아이티	300,000원
이본석 이본석 법률사무소	100,000원

**건축문화사랑 원고모집**

건축문화사랑에 게재할 원고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독자사진/지역소식/동호회소식/책/수필/수필/작품노트/건축작품/독자만평/기타(기행문, 시, 문학작품, 미담, 학위취득, 교수임용 등)

원고마감 : 매달 25일  
 문의 : 광주건축사회(T. 062-521-0025 / gjkira@empal.com)

1. 건축작품 및 기타를 제외한 모든 원고는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
2. 원고에는 작가의 사진과 사무소명, 직책 및 약력을 첨부
3. 원고는 아래 한글, 명조체, 10pt로 작성, 사진은 디지털파일로 제출

## 섬진강 한옥펜션 두가현

전우석 건축사 / (유)우석 건축사사무소

전남 영암군 삼호읍 삼호중앙로 157  
Tel. 061-473-2088



대지위치 : 전라남도 곡성군 고달면 두가리 546, 546-1번지 / 대지면적 : 1,610㎡ / 건축면적 : 210.42㎡ / 연면적 : 210.42㎡ / 건폐율 : 13.07%  
용적률 : 13.07% / 규모 : 지상 1층 / 주용도 : 주택(펜션) / 구조 : 한식목구조



**배치**  
소백산 줄기의 끝자락과 섬진강의 줄기 두가현이 만나는 곳에 위치하여 경관이 뛰어나며 주변의 계단식 논두렁이 조화되는 자연 석축 단차로 주변 자연과의 조화를 최우선시하였다. 외부공간은 돌담 및 석축을 활용하고 최소한의 식재로 자연과의 밀접성을 증대하도록 하였다.

**평면**  
두가현은 현주당, 창망재, 능소각, 화장실로 구성되어 현주당은 “ㄷ”자의 변형으로 자연을 품는 형상으로 계획하였고 창망재는 “-”자 형에 누마루 날개를 덧붙임으로 “-”자 형으로 하였고 능소각은 “+”자형의 평면이 원형으로 발전하는 자기완결적 형태를 취하였다.

**입면**  
전체적 입면은 주변과 조화를 우선시하였고 현주당은 팔작지붕의 조합으로 새가 비상하는 날개모양을 하며, 창망재는 중간 건물로 팔작지붕의 연속성을 주기 위하여 일변을 맞배지붕으로 처리하고 능소각은 변형된 원형지붕으로 처리하여 각각 다양하면서도 조화로운 지붕이 되도록 처리하였다.



**비대칭 EQ 합성보(진동, 응력 우수)**

응력 크기, 진동 크기에 따른 CASE별 시공순서

# EQ공법

- ▶ 일반철골구조에 비해 진동성능이 우수 (최대 45% 향상)
- ▶ 철골 공사비 40% ~ 15% 절감
- ▶ 접합부 내진 성능 및 응력 크기 향상
- ▶ 불필요한 중간기둥 없이 무주공간 활용 (공간 활용성 우수)
- ▶ 주차타워, 상가, 물류창고 적용시 공간활용 극대화

건축구조  
기술사회  
기술인증서  
획득

한국구조물진단  
유지관리공학회  
기술인증서  
획득

관내(강구조,  
건설사, 시행사)  
누구나  
사용 가능

무료  
철골구조  
경제성 검토

**문의전화 1666-5123**

### 전남건축사회, 여수 전남병원과 업무협약 체결

#### 회원사 및 직계가족, 소속 직원까지 진료비와 건강검진 비용 감면 혜택

전남건축사회(회장 한형민)는 회원사 및 직계가족, 건축사사무소 소속 직원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지난 4월 15일 전남 여수 전남병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내용에 따르면 회원사의 건강증진을 위해 상호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밝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병원 운영에 관한 정보공유와 함께 상호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소속 회원사(회원 및 직원) 및 회원사 직계가족에게 진료비와 건강검진 비용의 감면 혜택까지 주어지게 됐다.

감면 혜택을 받고자 하는 자는 원무과에 접수 시 회원증 또는 등록카드(건축사 회원), 재직증명서(소속 직원), 가족관계 증명서(회원 직계가족) 등을 제출하면 된다.

여수 전남병원(여수시 좌수영로 49 / TEL. 061-640-7575)은 300개 병상 규모의 여수지역 종합병원으로써 14개 진료과(내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가정의학과,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신경외과, 정형외과, 치과, 마취통증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영상의학과, 응급의학과, 비뇨기과)가 운영되고 있다.

### 전라남도, 건축정책 심의조정 역할하는 건축정책위원회 위원 공개모집

#### 오는 5월 24일까지... 건축, 도시계획, 문화(디자인) 분야 총 17명 모집

전라남도는 건축 분야 주요 정책과 공공건축 기획 등을 심의조정하는 전라남도 건축정책위원회 위원을 5월 24일까지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건축정책위원회는 건축기본법에 따른 심의·자문기구다. 민간위원 24명, 당연직 1명, 총 25명으로 임기는 2년이다.

지역 건축정책 비전 제시, 건축기본조례 개정, 건축기본계획 수립·시행, 건축행정 개선 및 공공건축사업 건축기획 등 건축정책 전반을 심의·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공개모집 분야는 건축, 도시계획, 문화(디자인) 분야로 총 17명이다.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 분야 관련 기술사 소지자, 대학에서 해당 분야를 전공한 사람으로 학교 또는 공인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 전라남도, 농어촌 빈집 '정비·활용' 동시 추진

#### 올해 1천 500여 동 대상... 쉼터운동시설 등 마을 공동시설화 모색

전라남도는 저출산 고령화와 함께 늘고 있는 빈집을 정비하면서 마을 공동시설 등 활용도 동시에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빈집은 매년 예산 형편에 따라 철거 위주로 추진해 왔다. 지난해 20억 원을 들여 1천 400여 동을 정비하는 등 그동안 245억 원을 투입해 3만 8천여 동을 정비했다. 올해는 1천 500여 동을 정비 또는 활용할 계획이다.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빈집은 1년 이상 거주하지 않는 농어촌 읍면지역을 기준으로 집계한다. 시 단위의 동 지역은 포함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전국 5만 6천여 동이 있고, 이 중 전남에 1만 4천여 동이 있다. 매년 2천여 동씩 늘어나, 모두 정비하는 데 한계가 있다. 통계청 자료는 거주하지 않는 모든 집을 대상으로 한다. 전국적으로 151만 7천 815동이 있고, 전남에는 12만 1천 767동이 있다.

이런 가운데 빈집 철거사업은 1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불가피한 경우를 대상으로 하지만, 전라남도는 가급적 마을 특성을 살리고 활용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철거 부지에는 주차장, 쉼터, 운동시설 등을 갖추고, 나무 등을 심어 마을 공동시설로 활용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마을별 실태 조사를 통해 활용 대안을 제시토록 함으로써 사유재산권 침해 문제를 해결키로 했다.

또한 도시재생사업,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가고 싶은 섬 가꾸기 사업, 농어촌 마을 경관 개선사업을 통해 확보한 활용 가능한 빈집의 정보를 귀향, 귀촌을 바라는 도시민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 순천시, 공공건축물에 '순천형 공간민주주의' 시범 도입

#### 공익활동지원센터·가족센터 설계에서 운영까지 시민참여 방식으로 추진

순천시는 올해 중앙동 소재 공익활동지원센터(구 국민은행)와 신청사 부지 내 가족센터에 '순천형 공간민주주의'를 시범적으로 도입해 건립한다.

그동안 공공건축물은 시민 모두가 이용하는 공간인데도 공공기관에서 일방적으로 조성해 제공한 후 이용을 요구했던 반면, 순천시는 이용자인 시민 중심의 공간을 조성하고 순천시만의 정체성을 담은 건물·공간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과정 등을 통해 시민들 누구나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순천형 공간민주주의' 개념을 도입해 추진한다.

특히, 공간에 대한 시민권을 바탕으로 '공익활동지원센터'와 '가족센터'는 설계부터 운영·관리까지 다양한 시민들의 참여 속에 의견수렴과 반영을 통해 시민의 욕구와 수요에 부합하는 공간으로 건립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는 공간민주주의에 함께 참여할 시민추진단을 4월경 모집 완료했으며 향후 전문 프로젝트 매니저와 함께 시민들을 대상으로 주요 공간배치 등에 대한 수요조사, 토론회를 통해 건축물을 구상한 후 설계와 건립을 추진한다.

또한 딱딱하고 경직된 공공건축물의 이미지를 탈피하여 시민 누구나 친근하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하기 위해 순천시만의 정체성을 담은 이미지(CI)도 만들어 낼 계획이다.

시는 이번 '순천형 공간민주주의'를 시범사업으로 추진한 후 시민들의 호응도와 효과성을 분석하여 모든 공공건축물에 확대 적용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공익활동지원센터는 공익적 시민활동 지원, 공익활동가와 시민리더 육성 등을 위해 2022년 2월 개소를 목표로 연면적 1,534.69㎡(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구 국민은행 건물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가족센터는 다문화자녀 언어교실, 공동육아 나눔터, 가족 소통공간 등의 공유공간을 담아 2023년 12월 개소를 목표로 연면적 1,220㎡ 규모로 건립한다.

### 동신대 건축공학과 이상준 교수, 2021 대한건축학회상 교육상 수상

#### 다양한 지역 사회 교육활동 등 전문 기술인 역량 끌어올린 공로



지난 4월 21일 동신대학교는 건축공학과 이상준 교수가 2021년 대한건축학회상 교육상 수상자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상준 교수는 1995년부터 현재까지 동신대에서 재직하며 건축 전문 인력 양성과 다양한 지역 사회 교육활동 등 지역 공무원과 전문 기술인의 역량을 끌어올린 공로를 인정 받았다.

대학건축학회 이사 4회, 대한건축학회 광주전남지회장 등을 역임하며 학회 발전을 이끌고 여러 차례 학술 논문과 연구 활동으로 건축 교육 발전에 기여 했다.

광주·전남의 낙후된 구도심 활성화를 위한 파일럿 연구, 도시건축 설계 프로젝트 등에 참여했으며 광주YMCA 좋은 동네 만들기 자문위원, 광주전남환경연구소 연구위원, 녹색교통 전환포럼 위원 등 지역사회를 위한 활발한 봉사활동과 NGO 활동도 펼쳤다. 국토해양부 지속가능한 도시대상의 평가 심사위원으로 참여해 평가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나주시가 2016년 도시재생 일반 재생형 부문 1위를 차지해 5년간 100억 원의 국비를 지원받는 데 기여 했다.

이와 함께 2018년에는 건축문화자원 활용, 보행환경개선, 지역재생 특성화 연구 등 지역 사회 활성화 공로로 국토부 장관상을 받기도 했다.

### 순천대 건축학부 이동희 교수, 여수 MBC 방송 출연

#### '어바웃 우리동네' 프로그램, 4월 28일 방영... '건축사진 이야기' 주제로



순천대학교 건축학부 이동희 교수가 지난 4월 28일 여수 MBC 방송 '어바웃 우리동네' 프로그램에 '건축사진 이야기'란 주제로 출연했다.

건축사진 전문가이기도 한 이동희 교수가 오는 5월 16일까지 개최하는 '아메리칸 파사드' 미국 건축물 사진작품전과 그동안 촬영한 건축사진 작품을 소개하는 내용이 방영됐다.

이동희 교수는 1981년부터 사진촬영을 시작해 2000년부터 건축물을 미학적 측면에서 접근해 사진으로 남기는 작업을 해왔다. 국제건축도시사진공모전, 대한민국관광사진공모전, 한옥사진공모전 등 다수의 사진공모전에서 입상했으며 일본과 미국에서 건축사진 초대전을 열어 많은 주목을 받았다.

해당 방송분은 유튜브(<https://youtu.be/qT-EWSDUfAO>)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 전남 회원동정

- **입회**  
- 송지희 건축사 / 품에 건축사사무소 / 전남 여수시 시청서5길 3, 3층
- **변경(소재지)**  
- 이 준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제이플러스 / 전남 여수시 시청동1길 17, 7층  
- 전해금 건축사 / 더함 건축사사무소 / 전남 보성군 보성읍 송재로 151, 1층 3호

꿈을 꾸는 家

강미현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예감  
전북 전주시 완산구 황학5길 5-7  
Tel. 063-288-9380



대지위치 : 강원도 원주시 반곡동 2019-14 / 대지면적 : 282.6㎡ / 건축면적 : 112.11㎡ / 연면적 : 184.18㎡ / 규모 : 지상 2층 / 주용도 : 단독주택  
구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일반목구조 / 주요 마감 : 스타코, 노출콘크리트 미장, 징크판넬



전북건축사회, 회원사에 설계수탁신고 프로그램 활용 요청

지난 4월 말, 공고 통해 적극 활용 요청... 홈페이지에서 접속 가능

전북건축사회(회장 박진만)에서는 기획설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계도와 건축사의 창의성을 확립하고 타 건축사와의 중복 수탁을 예방하고자 '온라인 설계수탁 프로그램'을 개발(전주시건축사회 2016년 개발)하여 2019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전북건축사회 관계자는 "해당 프로그램은 본인이 수탁신고한 사항에 대해 중복 될 경우 중복 여부만 확인 가능하며, 세부 사항은 관리자 외에는 열람하여 확인할 수 없으니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활용을 바란다"고 밝혔다.

다음은 해당 프로그램 이용 방법 및 참고사항이다.

• 프로그램 인터넷 주소 및 이용방법 : <http://jbat.thesome.com>

- |  |
|--|
| ① 인터넷 주소창에 <a href="http://jbat.thesome.com">http://jbat.thesome.com</a> 입력<br>또는 전북건축사회 홈페이지 하단 배너창의 "설계수탁신고 프로그램" 클릭 |
| ② 전북건축사회 설계수탁프로그램 로그인  |
| ③ 메뉴 중 "수탁신고" 클릭 후 건축설계용역 내용 입력  |
| ④ 동일대지의 중복의뢰건 여부 확인창 확인(게시완료)  |

• 프로그램 관련 참고사항

1. 수탁사항을 게시하고 동일 대지에 수탁사항이 있을 경우에만 중복수탁 여부 확인 가능
2. 본인이 신고한 수탁사항에 대하여 중복수탁 된 경우 외에는 타 회원은 알 수 없음
3. 신고된 수탁사항은 등록된 일자과 시간이 표시됨
4. 수탁신고 후 다른 건축사의 수탁신고 여부는 "수탁목록" 메뉴에서 확인 가능
5. 초기 아이디와 비번은 "건축사 면허번호"로 가입되어 있음(비번 수정요망)  
(단, 2019년 1월 이후 협회 가입 회원은 회원가입 요망)

전라북도, 전국 첫 주거 통합마을 프로젝트 공모

오는 5월 21일까지 14개 시군 대상 공모... 3개소 선정 예정

전라북도가 5가구 미만의 과소화 마을 주민 중 이주 희망자를 인근 거점 마을로 이주시키는 '2021년 햇살가득 농촌재생 프로젝트' 사업을 공모한다.

지난 4월 26일 전라북도에 따르면 이번 공모사업은 농촌지역 인구감소로 인한 농촌 공동화와 마을 소멸이라는 발등의 불이 놓여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발전전략 마련으로 추진된다.

전국 최초로 추진되는 이번 사업은 도내 농촌지역 과소화 실정에 맞는 맞춤형 사

업을 발굴·추진해 향후 성공모델을 다른 지자체까지 확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사업의 핵심은 인구감소에 따른 과소화 마을의 고령화 추세에 따른 주거이전, 의료·복지, 일자리 등을 집약시켜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압축 거점마을(Compacted village) 형성을 골자로 하고 있다.

5가구 미만의 농촌지역 과소화 마을 거주자 중 읍면 소재지나 50가구 이상의 인근 거점마을로 이주를 희망하는 대상자를 이주시켜 정주 여건을 개선한다.

주거통합 거점마을에는 주거·문화·의료 및 보건진료소나 마을회관 등의 공공시설, 정보통신, 금융, 물류 등 다양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게 된다.

거점마을의 부족한 의료·복지·문화시설 등 확충을 통한 기능 집약화로 통합 복지 서비스 제공 및 일자리 창출과 농촌지역 공동체의 복원도 꾀할 예정이다.

공모 참가를 희망하는 시군은 해당 지역 과소화-거점마을 특성과 현장 수요에 맞는 사업을 발굴, 5월 21일까지 전라북도에 제출하면 된다.

전라북도는 시군과 함께 사업계획 단계부터 현장을 점검하고 사업대상지 선정 및 다양한 콘텐츠 개발을 지원할 예정으로, 시군으로부터 공모신청서가 접수되면 평가위원회의 서류·현장평가, 발표평가를 거쳐 5월 말에 총 3개소 사업대상지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전라북도 총괄건축가에 '진정 전북대 명예교수' 위촉

지난 4월 30일 위촉식 가져... 공공건축과 공간 환경사업 총괄조정 및 자문



전라북도는 지난 4월 30일 전라북도 총괄건축가에 전북대학교 건축학과 진정 명예교수를 위촉했다고 밝혔다.

진정 총괄건축가는 5월부터 전라북도의 주요 공공건축과 공간 환경사업에 대한 총괄조정 및 자문 등을 담당한다.

이를 통해 공공건축 사업의 디자인 품질향상은 물론, 공공건축물의 공공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진정 총괄건축가는 그동안의 전북대 재직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공공건축가 제도의 디딤돌을 다져 나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진정 총괄건축가는 39년간 전북대 건축학과 교수로 재직했고, 도와 시·군의 도시, 건축, 경관 등의 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바 있다.

또한 전라북도 공공디자인 심의위원회 부위원장 역할을 수행하는 등 현재도 왕성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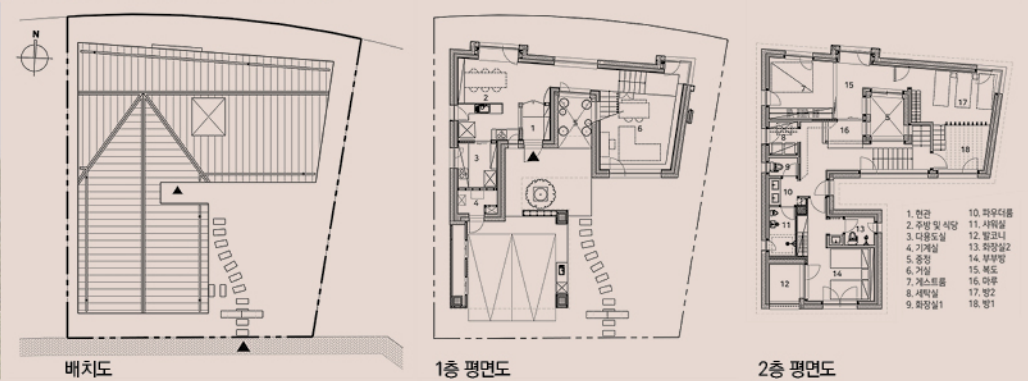


‘꿈을 꾸는 家’는 삼 남매의 성장기를 위한 주택이다. 공원으로 둘러싸인 대지는 그 자체로도 아이들에게 쉼터이자 놀이터가 된다. 건축은 다만 거들 뿐이다.

중정을 품은 스킵플로어 구조의 주방과 거실에서 공간과 자연의 변화를 함께 느낄 수 있고, 순환 동선의 내부 구조는 아이들이 우당탕 뛰어놀 때도 숨바꼭질을 할 때도 요긴하게 사용될 것이다.

또한 이번 프로젝트에서는 철근콘크리트조와 목조를 결합한 하이브리드 구조를 사용했다. 각각의 구조가 가지는 장점을 극대화하기 위한 선택이다.

주택은 마음으로 짓는 프로젝트다. 비교적 먼 거리지만 설계자로서 감리자로서 최선을 프로젝트에 임했고,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편안한 삶을 언제나 기원했다.



**전북 전주 추원호 건축사, 대한시문학 우수상 수상**  
오는 6월 26일 서울 ‘문학의 집’에서 시상식 진행 예정



본지 논설위원이자 시인, 서예가로 활동하고 있는 전북 전주 추원호 건축사(건축사사무소 신세대그룹)가 대한시문학협회에서 주관한 2021년 3호 대한시문학 신인문학상 및 문학상에서 시 부문 우수상을 받았다.

추원호 건축사는 시 ‘겨울나무와 설중산행, 만추의 아침’ 등 3편을 제출해 우수상을 받았다. 이번 대한시문학 수상자들은 오는 6월 26일 서울 퇴계로26길에 있는 ‘문학의 집’에서 시상식이 있을 예정이다.

한편, 추원호 건축사는 전북미술대전 초대작가(서예), 전국온고을대전 초대작가(서예), 창암이삼만기념 전국서화회대회에서 대상 수상을 수상한 초대작가다. 또 2019년 샘터문학과 한맥문학에서 신인문학상을 수상해 등단했다.

**정읍시, 도시재생 소식지 ‘정읍 리본’ 발간**  
생생한 정보와 이야기 공유... 시민과의 소통창구 역할 기대



정읍시가 도시재생의 정보를 담은 소식지 ‘정읍 리본:Reborn’(이하 정읍 리본)을 발간했다.

‘정읍 리본’은 정읍시가 도시재생을 통해 새롭게 거듭나고, 다시 태어나서 사람들로 북적거리는 거리가 되기를 바라는 염원을 담고 있다.

도시재생과 관련된 주민들의 다양한 이야기와 사업에 대한 정보를 담아 도시재생의 변화상과 효과를 한눈에 들여다볼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로 발간하게 됐다.

소식지는 16절 책자 16면으로 제작해 분기별로 총 4회 발간된다.

주요 배부처는 지역 내 도시재생 관련 기관·단체를 비롯해 전국 도시재생지원센터 등이다.

이번에 발간된 봄호에는 도시재생에 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올해의 사업 소개, 도시재생 주민협의체 소개 등을 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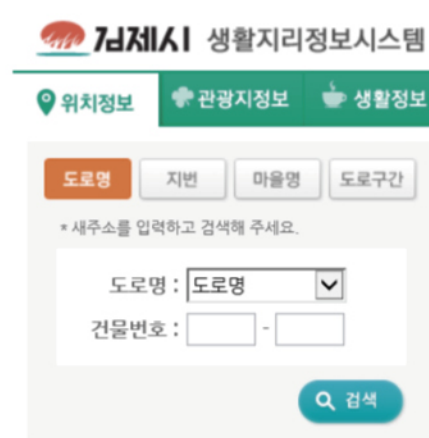
특히, 주민들의 의견이 도시재생생활화계획에 반영되는 과정과 다양한 주민공모 사업들,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달라진 지역의 모습 등이 담겨 있다.

시는 ‘정읍 리본’을 통해 도시재생사업의 추진 경과와 시에서 추진하는 도시재생 사업에 대한 정보를 주민들에게 쉽고 친근한 방법으로 전달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도시재생사업의 주체인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이끌어 내고 주민 주도적 사업추진을 위한 도시재생의 원동력으로 삼을 방침이다.

한편 정읍시의 도시재생 관련 소식은 페이스북과 블로그 등 SNS를 통해 빠르게 확인할 수 있다.

**김제시, 생활지리정보 항공사진 탑재 서비스 제공**  
시청 홈페이지 접속 및 스마트폰에서 ‘김제시 생활지리정보’로 입력해 사용 가능



김제시가 ‘2020년 항공사진(정사영상)’을 국토지리정보원에서 무상으로 제공받아 공간정보시스템에 탑재해 본격적인 서비스를 실시한다.

지난 5월 초 김제시에 따르면 공간정보시스템은 항공사진, 지번, 도로명주소, 건물위치 등 생활정보와 공시지가 토지면적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특히, 개별 주택가격과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건축·산림·농지, 환경 등 각종 인·허가 기초자료로 활용

되어 행정업무 효율성이 한층 기대된다.

공간정보시스템 사용은 시청 홈페이지 ‘생활지리정보시스템’이나 스마트폰에서 ‘김제시 생활지리정보’ 또는 모바일 주소창에 주소(<http://gis.gimje.go.kr>)를 직접 입력해 이용할 수 있다.

**전북 회원동정**

- **변경(소재지)**
  - 이춘성 건축사 / (주)다운 건축사사무소 / 전북 부안군 부안읍 부풍로 10
- **결혼**
  - 정훈석 건축사 / 정훈 건축사사무소 / 본인 결혼 - 04월 24일(토)
  - 조두석 건축사 / 극동 건축사사무소 / 차녀 결혼 - 04월 24일(토)
  - 이정복 건축사 / 필 건축사사무소 / 여식 결혼 - 05월 01일(토)
  - 김 용 건축사 / 김용 건축사사무소 / 차녀 결혼 - 05월 08일(토)
  - 강문수 건축사 / (주)울그룹 건축사사무소 / 장남 결혼 - 05월 15일(토)
  - 권영욱 건축사 / 영 건축사사무소 / 장녀 결혼 - 05월 22일(토)
- **부고**
  - 백대홍 건축사 / 인성 건축사사무소 / 빙부상 - 04월 22일(목)
  - 허성제 건축사 / 화이 건축사사무소 / 빙모상 - 04월 27일(화)

**광주광역시, '광주 도시·건축 선언' 이행 위한 매뉴얼 발표**

지난 5월 6일 시청 무등홀에서... 함인선 총괄건축가 직접발표, 정인채 회장 등 참석



광주광역시는 지난 5월 6일 시청 무등홀에서 '광주 도시·건축 선언' 이행을 위한 매뉴얼을 발표하는 행사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광주광역시의회 김용집 의장과 광주광역시 김종호 행정부시장, 광주건축사회 정인채 회장을 비롯하여 광주지역 건축전문가들이 대거 참석했다.

광주광역시는 지난해 10월 30일 새로운 광주 도시·건축의 비전과 광주다움을 회복하겠다는 다짐을 담은 '광주 도시·건축 선언' 발표 이후, 일회성 선언에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사업을 통해 선언이 이행될 수 있도록 실천 매뉴얼을 마련하는 데 노력해 왔었다.

광주광역시 함인선 총괄건축가가 직접 발표한 매뉴얼은 광주광역시기가 수립 중이거나 수립기로 한 도시기본계획, 건축기본계획, 경관기본계획, 주택종합계획, 안전관리계획, 공원녹지 기본계획 등 65개 법정·비법정계획, 조례, 지침, 정책연구 등을 대상으로 하며, 도시·건축 선언이 추구하는 가치와 계획, 목표를 담은 매뉴얼의 내용을 반영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

총 10개 조문별로 계획목표, 추진과제, 추진전략, 추진사업, 추진체계, 체크리스트를 마련해 추진 과제별로 성과관리를 할 수 있고, 특히 추진부서와 일정을 명시해 이행 책임 주체와 로드맵을 알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이행 성과관리를 위해 시민사회, 의회, 광주광역시가 이행 결과를 모니터링하고 건축정책위의 검토를 거쳐 2년마다 성과보고서를 작성하게 된다.

이날 매뉴얼과 함께 이행 선도 프로젝트로 '무등산 조망 확보 및 녹지 네트워크 구축방안'과 '지구상세계화를 통한 원도심 도시·건축 관리방안'도 발표했다.

한편, '광주 도시·건축 선언'은 삶의 질이 중시되고 사람이 주인이 되는 도시로 재생시키기 위해 2019년 7월부터 총괄건축가 및 공공건축가(24인)의 작업 등으로 마련됐다.

**광주건축사회, 시청·교육청·경제자유구역청과 연달아 간담회 가저**

정인채 회장 취임 후 관계 기관장 등과 협력 논의 등 광폭 행보 나서

광주건축사회 정인채 회장 취임 후 구성된 신임 회장단이 지난 4월 초에 광주지역 5개 구청장들과의 간담회를 마무리하고, 4월 중순부터 시청·교육청·경제자유구역청 기관장 등과 연달아 간담회를 갖고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장휘국 교육감과의 간담회



김진철 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과의 간담회

먼저 4월 15일 광주교육청 교육감실에서 장휘국 교육감과 간담회를 가졌으며, 4월 16일에는 광주광역시 시장실에서 이용섭 시장과 건축단체 회장단 간담회, 4월 22일에는 광주경제자유구역청 청장실에서 김진철 청장과 간담회, 4월 26일에는 광주광역시 도시재생국장실에서 이상배 국장과 간담회를 갖는 등 연달아 관계 기관들과 간담회를 갖고 양기관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한 상호 업무협력 및 건축계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정인채 회장은 "앞으로 회원사들이 업무를 수월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건축 관계 기관들과 적극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광역시 도시재생국 이상배 국장과의 간담회에서 내년 본격적으로 시행될 지역건축안전센터 운영과 관련해 광주건축사회와 긴밀한 협의를 진행할 것을 확인받았다.

**광주건축사회, 광주시 관내 경제자유구역에 해당하는 지구단위계획 지침 공지**

빛그린산단과 남구 도시첨단산단, 에너지밸리일반산단 해당 홈페이지에서 확인

광주건축사회는 지난 4월 28일 공문을 통해 회원사에 광주광역시 관내 경제자유구역에 해당하는 지구단위계획 지침을 공지했다.

일부 회원들이 해당 구역의 건축 인·허가 신청 시 구역별로 제출해야 하는 도서 내용들이 각각 달라 업무에 혼선을 빚음에 따라 공지를 통해 안내한 것이다.

광주경제자유구역청 관할 담당 지구는 빛그린산업단지과 광주 남구 도시첨단산업단지, 광주 에너지밸리일반산업단지이다.

해당 지구단위 계획 지침은 광주건축사회 홈페이지(<http://gjkira.kira.or.kr>) 공지사항 220787번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광주건축사회, 목포공업고등학교와 간담회 가저**

지난 4월 20일 광주건축사회 회장실에서... 졸업예정 학생 취업지원 의견교환

광주건축사회는 지난 4월 20일 광주건축사회관 4층 회장실에서 목포공업고등학교(이하 목포공고)와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광주건축사회에서 정인채 회장과 양동희 사무처장, 목포공고에서 강성호 교장과 정승원 건축과 부장 등 관계자 6인이 참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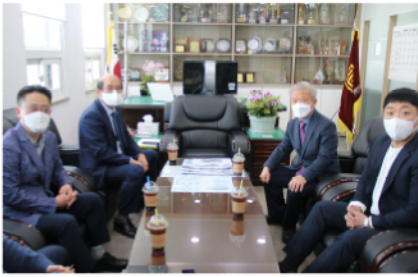
**꿈꾸는 공간**

이원규 건축사  
건축사사무소 이원건축  
광주 서구 화정로 268, 3층  
Tel. 062-363-3370



위치 : 광주 수완중학교 강당 앞 휴식공간 / 면적 : 100㎡ / 예산 : 6천만 원





이번 간담회에서 목포공고 건축과 졸업예정자들에 대한 취업지원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으며, 앞으로 상호 협력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기로 했다. 한편, 광주건축사회와 목포공고는 지난해 5월 우수건축인 양성을 위한 산학협력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광주건축사회, 2021년 광주건축사회장배 골프대회 개최**

지난 5월 4일 무안CC에서 골프동호회 회원 및 일반 회원 등 84명 참가



올해 광주건축사회장배 골프대회가 지난 5월 4일 전남 무안 CC에서 골프동호회 회원 및 일반 회원 등 84명이 참가한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됐다.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방역수칙을 철저히 하여 진행했으며, 기념식은 생략하고, 정인채 회장의 간단한 메시지 전달 후 대회를 개최했다.

광주건축사회 정인채 회장은 대회 참가자 1명마다 직접 인사를 건네며 건승을 기원했고, 골프동호회 한명석 회장은 이번 대회를 위해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은 정인채 회장을 비롯해 여러 건축사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한편, 올해 하반기에는 광주건축사골프동호회장배 골프대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광주광역시, 건설공사 공법선정위원회 위원 모집**

5월 17일까지 건축·계약·환경·토목 등 13개 분야 전문가 150명

광주광역시는 지방계약법 행정규칙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집행기준'에 신기술·특허공법 선정기준이 마련·시행됨에 따라 건설공사 공법선정위원회 위원 후보자를 오는 5월 17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모집 분야는 계약, 환경, 조경, 토목시공, 토목구조, 수자원, 상하수도, 토질터널, 건축시공, 건축구조, 기계설비, 전기전력 등 13개 분야이며, 광주·전남 거주 또는 활동하는 전문 기술인을 중심으로 150명 내외를 모집한다.

신청 자격은 건축사를 비롯하여 국가 및 타 자치단체 5급 이상 공무원, 건설 관련 단체 및 연구기관의 임원 또는 연구원, 해당 분야 대학의 조교수급 이상, 해당 분야의 박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석사학위 취득 후 9년 이상 연구 및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해당 분야 기술사, 변리사, 설계 경제성 검토 자격이 있는 사람, 시민단체 등이 추천하는 건설기술과 관련된 전문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위원회는 건설공사에 적용할 신기술·특허 공법 적용 필요성 및 타당성을 검토하고 선정하며 임기는 위촉일인 오는 7월 1일부터 2년간이다.

시는 관련기관과 단체, 학계, 시민단체, 공공기관, 민간기업 소속 기술인이 고루 선정될 수 있도록 하되, 여성전문가 및 지역기술자는 우선 선정될 수 있도록 우대할 계획이다.

응모 접수는 광주광역시 홈페이지(<https://www.gwangju.go.kr>) 고시·공고에서 '건설공사 공법선정위원회 위원 후보자 공개모집'을 검색한 후 제출서류를 작성해 직접 방문이나 우편, 이메일로 제출하면 되고, 관련 사항은 광주건축사회 홈페이지 공지사항 220879번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광주건축사연금관리회, 대명리조트 2021년 여름성수기 추첨 접수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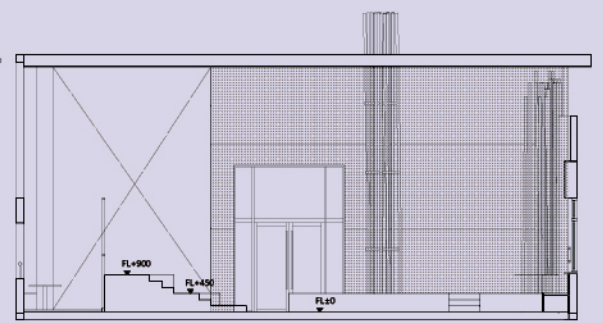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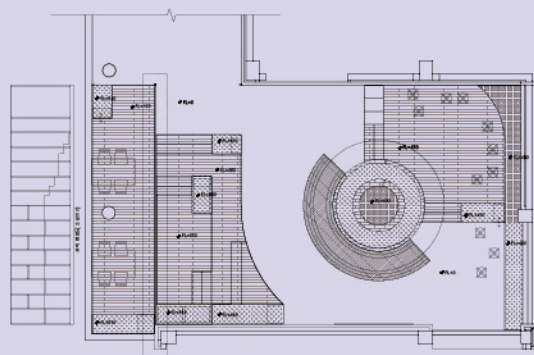
- 접수대상 : 광주건축사연금관리회 회원
- 연휴기간 : 2021년 7월 23일(금)부터 8월 21일(토)까지
- 접수기간 : 2021년 5월 07일(금)부터 5월 27일(목)까지
- 결과발표 : 2021년 6월 01일(화) 오후 3시 개별 문자 통보
- 접수방법 : 광주건축사회 홈페이지(<http://gjkira.kira.or.kr>) 공지사항 220993번에서 이용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후, 이메일([gjkira@empas.com](mailto:gjkira@empas.com)) 또는 팩스(062-528-0026) 전송

**광주 회원동정**

- **입회**
  - 고영화 건축사 / 세운 건축사사무소 / 광주 서구 마로로 110, 3층
  - 박판규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매스디자인 / 광주 광산구 산정로 16, 1층 101호
- **변경(상호)**
  - 김종관 건축사 / 전일 건축사사무소 → (유)전일 건축사사무소
- **변경(소재지)**
  - 김준휘 건축사 / 투윤 건축사사무소 / 광주 북구 첨단연신로107번길 45-22, 3층
  - 원현성 건축사 / 원 건축사사무소(주) / 광주 남구 봉선1로 82, 2층
  - 김승모 건축사 / 예건 건축사사무소 / 광주 북구 중가로 64-1, 6층 601호
  - 박주현 건축사 / 바움 건축사사무소 / 광주 남구 서문대로749번다길 33, 지하 1층
  - 정광렬 건축사 / 성지 건축사사무소 / 광주 광산구 목련로2번길 29-64
  - 나종섭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늘 / 광주 동구 천변우로 339, 1403호
  - 백철우 건축사 / 디바 건축사사무소 / 광주 광산구 장신로 337, 401호
  - 김용균 건축사 / 삼성 건축사사무소 / 광주 남구 백양로7번길 2, 1층
- **결혼**
  - 최은영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봄 / 본인 결혼 - 05월 16일(일)
  - 박동준 건축사 / (주)그룹포에이 건축사사무소 / 장녀 결혼 - 05월 29일(토)
- **부고**
  - 차은영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시명 / 부친상 - 05월 03일(월)
  - 양기승 건축사 / (주)청연 건축사사무소 / 모친상 - 05월 07일(금)



“ 몇 번의 미팅 끝에 학생 및 선생님의 의견을 수렴한 후 예산에 맞추어 계획의 방향을 결정하였다. 외부 지붕의 원형 보이드 공간을 기준으로 삼아 학생들이 휴식할 수 있는 구심적인 공간을 만들고자 했다. 기존의 텅 빈 공간에 원형의 선들이 중첩되어 동선에 맞게 나뉘지며 각 공간들은 요구하는 휴식공간으로 꾸며졌다. ”



평면도

단면도

## 진도 공립 노인요양시설·장애인체육관 설계공모

본 설계공모는 진도 공립 노인요양시설·장애인체육관을 건립함에 있어, 보다 창의적이고 실용성과 경제성이 우수한 설계안을 선정하고자 설계공모를 실시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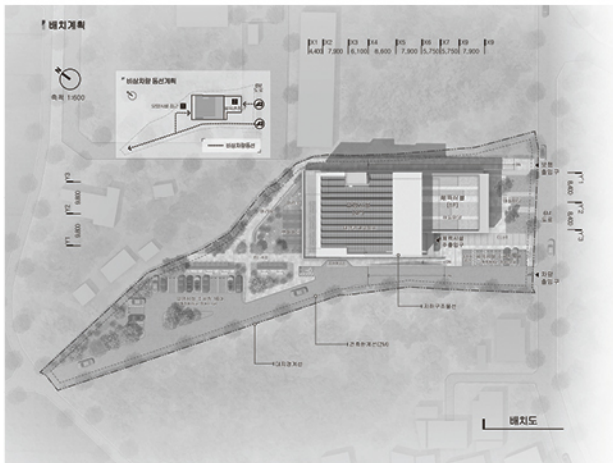
심사위원 : 이영철(세원건축), 김재수(원광대), 이종철(서안건축), 문창호(군산대), 신종찬(메인건축), 유승희(원건축), 최경양(한샘건축)

- 대지위치 : 전라남도 진도군 진도읍 남동리 453-25 외 4필지
- 대지면적 : 5,302.00㎡
- 연 면 적 : 3,489.50㎡
- 지역지구 :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 용 도 : 노유자시설
- 공 사 비 : 405.3백만 원(VAT 포함)

당선작 : (주)종합건축사사무소 창  
 우수작 : 오에스엠 건축사사무소  
 \* 자료 미제출

### 당선작

정현아 건축사 / (주)종합건축사사무소 창



## 광고 및 구독신청

건축과 도시, 사람과 자연의 경계를 넘는  
 소통과 공유의 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적극적인 관심과 사랑을 바랍니다.

- 후면 전면광고 : 1,000,000원
- 후면 외 전면광고 : 700,000원
- 하단광고 : 350,000원
- 하단1/2광고 : 200,000원
- 구독료 : 20,000원/1년
- 구독료입금계좌  
 예금주 : 광주건축사회  
 계좌번호 : 신한 131-009-471898

**건축문화사랑 신문**

T. 062)521-0025~6 F. 062)528-0026



## 2021년도 제1회 건축사 자격시험 합격예정자 5월 14일 발표

지난 3월 20일 시행된 1회 시험 결과... 대한건축사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지난 3월 20일 시행된 2021년도 제1회 건축사자격시험의 합격예정자 발표가 오는 5월 14일 진행 된다.

합격예정자는 대한건축사협회 홈페이지(<https://www.kira.or.kr/>) 및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합격예

정자는 제출서류 접수증과 개인정보활용동의서, 졸업증명서(해당자), 경력증명서(해당자), 건축사예비시험 합격증 사본 또는 합격확인서(해당자) 등을 각 시·도건축사회에 제출해야 한다.

최종합격자는 오는 7월 2일 동일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 국토부, 건축인 양성을 위한 청년 인재육성 사업 기관 모집

오는 5월 17일부터 모집... 국내건축학 교육 인증 대학(원) 대상

국토교통부는 오는 5월 17일부터 건축설계 분야 우수 인재를 양성하는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관을 모집한다. 모집 대상은 국내 건축학 교육 인증 대학(원)이며, 건축사사무소 실무연수를 받는 재학생 인건비 보조를 위해 총 13억 원을 지원한다.

건축설계 인재육성 사업은 국토교통부가 2019년부터 추진해온 교육훈련 지원 프로그램으로, 해외 설계사무소 또는 연구기관에서 다양한 설계기법을 배울 수 있도록 청년 건축인에게 해외연수 비용을 지원해왔다.

작년부터는 국제 설계공모, 해외전시 참여 등 다양한 건축 관련 활동도 추가하여 지원해 왔으나,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해외연수가 지연되는 등 참가자들이 해외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올해부터는 국내 건축사사무소에서 실무연수를 통해 건축설계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국내 프로그램을 마련하였다.

국내 건축학 교육 인증을 받은 대학(원) 중 참가 기관을 모집하여, 건축사사무소 실무연수를 받는 재학생의 인건비를 보조할 예정이다. 총 13억 원 규모로, 학과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학교별로 3,300만 원에서 1억 9,200만 원까지 차등 지원한다.

제출한 서류, 발표 등을 통해, 사업수행 역량, 산학협력 네트워크 우수성, 인재 선발 적절성 등을 평가하여 20여 개 학교를 선발할 계획이며, 보다 다양한 훈련을 지원하기 위해 전시, 워크숍 등 학생 참여형 활동에 대하여 소요경비도 함께 지원한다.

오는 5월 17일부터 5월 25일까지 신청 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인재육성사업 누리집(<http://archi-training.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류 및 발표 평가를 통해 6월 말에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 소규모 건축물도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신청 가능해진다

주거 및 업무시설 제외 냉방 및 난방 면적 500㎡ 미만 건축물 등

### 【 ZEB 인증 취득 시 주요 혜택 현황 】

- 건축기준 완화 : 건축물의 용적률 및 높이 등급별 기준완화(최대 15%)
- 세제혜택 : 취득세 감면(최대 20%)
- 금융지원 : 공공임대, 행복주택 등 대상 주택도시기금 대출한도 20% 상향, 기반시설 기부채납 부담수준 최대 15% 경감률 적용
- 신재생에너지 설치보조금 지원, 에너지융합리화 자금지원 등(산업부)

앞으로는 소규모 건축물도 제로에너지건축물(이하 'ZEB') 인증을 신청할 수 있고, 건축물에너지인증 운영기관의 업무도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탄소 중립 사회로의 전환과 높아지고 있는 ZEB 인증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지난 4월 29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해 온 ZEB 인증 건수는 지난해 공공건축물 ZEB 의무화 도입에 따라 급증하였다.

하지만, 향후 지속적인 인증 건수 확대에 대비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증기관은 운영기관인 한국에너지공단 1개 기관에 불과한 상황이다.

또한, 일부 용도의 소규모 건축물은 ZEB 및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희망하더라도 적용 대상 제한 규제로 인해 인증을 받을 수 없어 인센티브 적용 불가 및 인증 활성화에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이러한 제도 운영상의 불편함과 미흡한 점을 해소하고, 보다 효율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인증 개정안을 마련하게 되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건축물에너지인증 적용 대상 완화와 ZEB 인증기관 확대 기반 마련, 건축물에너지인증 운영기관의 업무 확대, 건축물에너지 인증위원회 통합 등이다.

해당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6월 8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2021 아시아건축사협의회(ARCASIA) 건축상 공모전 개최

오는 5월 23일까지 등록마감... 등록개시일 기준 2년 이내 준공작품 접수



아시아 21개 회원국 건축사단체의 협의회인 아시아건축사협의회 주관으로 개최되는 '2021 아시아건축사협의회 (ARCASIA) 건축상' 공모전이 오는 5월 23일(00시 59분/한국시간) 마감된다.

지난 4월 23일부터 등록 시작된 본 건축상은 21개 회원국 국가에서 건축실무를 위해 정식으로 등록된 건축사에게만 자격이 부여되고, 출품작은 등록 게시일로부터 최소 2년 이내 준공된 작품으로 접수 받는다.

제출서류는 출품자 정보와 함께 건축사 자격등록증(영문), 작품개요 및 세부사항, 작품 도안, 사진자료 및 영문설명, 작품영

상(1분)이며, 출품작 1작당 100 USD(한화 12만 원/ARCASIA 회원단체 회원의 경우 출품작 당 75 USD/한화 약 9만 원)를 납부하여야 한다.

작품제출은 영어로 진행되며 참가자가 직접 해당 홈페이지에 업로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대한건축사협회 홈페이지(<https://www.kira.or.kr>) 공지사항을 참고하기 바란다.

### 대한건축사협회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관련 안내문

대한건축사협회는 정관에서 정한 목적 및 사업 추진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및 제17조, 제22조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대하여 안내하고 다음과 같이 본인의 동의를 얻고자 하오니, 정회원께서는 동의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 4. 29.

회원구분	신규 입회 및 재입회 정회원	개정 규정 시행 및 이전에 입회한 정회원
제출방법	[오프라인 서류제출] - 해당 시·도건축사회로 정회원 신고서 제출 시 동의서 원본 함께 제출	[온라인 제출 또는 오프라인 서류제출] - 온라인 제출 1. 대한건축사협회홈페이지( <a href="http://www.kira.or.kr">www.kira.or.kr</a> ) 로그인→행정·위탁업무→정회원 관리 프로그램 실행(※팝업차단한 경우, 팝업허용 필요※) 2. 동의 체크 후 확인, 제출완료 - 오프라인 제출 시 해당 시·도 건축사회 동의서 원본 제출

※ 관련 근거 : 2021년도 제4회 이사회('21.4.21.)에서 회원신고관리규정 개정(시행 '21.4.21.)

책 소개 \_ 김금화 주부 / 광주 북구 임동

피프티 피플

정세랑 저 / 창비 / 2016. 11. 21.

책 속 모두가 주인공인 책, '피프티 피플'은 '보건교사 안은영'의 작가로 유명세를 타고 있는 정세랑 작가의 2016년 작 장편소설이다.

작가의 말 중 작가는 문득 주인공이 없는 소설을 쓰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아니면 모두가 주인공이라 주인공이 50명쯤 되는 소설, 한 사람 한 사람은 미색밖에 띄지 않는다 해도 나란히 나란히 자리를 찾아가는 그런 이야기를 쓰고 싶었다고 적었다.



그의 말처럼 책은 50여 명 인물의 이름을 소재목으로 삼았다. 타투이스트, 병원 보안요원, 아르바이트생, 외과 의사, 캐디 등 그들은 곳곳에서 자기의 일을 하며 살아가고 있다. 그러면서 모자, 부자, 모녀, 부녀, 부부, 고부 사이기도 했고, 룸메이트, 인턴 동기, 사장과 알바생 등 서로가 관계로 얽혀있기도 했다. 또 깊은 관계가 아닌 그저 스치는 인연이기도 했다.

뛰어나거나 특별하거나 한 몇 사람만을 주인공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한 명 한 명이 주인공이고 또 누군가의 주변인이 되었다. 진짜 세상처럼 말이다.

주인공 한 사람의 이야기 속에 또 다른 주인공이 등장해, 책을 순서대로 읽어가며 떠올려보려다가 이내 궁금증이 일어 등장한 사람의 이름이 쓰인 페이지를 펼치고 읽어가고 있었다. 더듬더듬 퍼즐 맞추기를 하듯 책 속 주인공들을 맞춰보았다. 시험공부를 하는 것처럼 노트에 등장인물들의 관계 지도를 그리고 있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절로 그렇게 되었다.

매일같이 같은 정류장에서 마주쳤던 그녀가 내 친구의 아내가 되어 놀랐던 것처럼, 책도 폭풍처럼 무섭게 몰아치는 반전을 품고 있지는 않지만, 모르는 사이, 또 아는 사이에 서로서로 이렇게 웃기를 스칠 수도 있다는 걸 확인한 게 반전이였다.

누구라도 이 책을 읽어보길 추천한다. 매력적인 책이라서 말이다.

한 편의 시 \_ 濟堂 추원호 / 건축사사무소 신세대그림

겨울나무

늦은 해와 이른 해를 안고  
우두커니 서 있는 겨울나무

봄 여름 풍성했던 옷을  
홀홀 다 털어버린 채  
뾰족 뾰족 풍상을 견디고 있다

얇은 껍질 몸에 걸치고  
거치른 피부 속에  
스며드는 겨울의 찬바람

화려한 바람막이 집  
뜨끈한 이불속에서  
단꿈을 꾸는 세상사람들  
부럽지도 않다

차가운 북풍 등에 걸치고  
쉬이 지는 해 바라보며  
갈게 그림자 드리운 채  
우뚝 선 고독의 겨울나무

인간의 모습을 닮지 않은  
욕심없는 빈마음으로  
풍성한 새봄을 꿈꾸며  
오늘도 겨울의 찬바람을 맞는다



세상사는 느낌 \_ 이정서 대표 / (주)글로벌에스아이

인간이 살아가면서 하고 싶은 것을 얼마나 이루며 살고 있을까?

몽당연필에 볼펜 대를 끼워서 사용하던 시절이 있었다.

그 시절에 하고 싶은 것은 단 하나, 또래 동네 꼬마 녀석들과 원 없이 놀고 싶은 것이었다. 해가 누엣누엣 넘어갈 때 즈음, 동네 여기저기에서 어머니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며 저녁을 준비하는, 고소한 향기와 모락모락 하늘로 향하는 연기들 사이로 친구들 집에서는 귀가를 서두르라는 외침을 들으며 하나둘씩 집으로 향하는 친구를 모두 보내고 얼굴이며 옷이며 땀으로 범벅이 된 채 가장 마지막까지 남아서 놀던 그 시절에는 흔들 샤프가 없어도, 몽당연필에 볼펜 대를 끼워서 사용하더라도 그저 놀고 싶은 것이 전부였다.

중·고등학교 시절 방향을 거듭하던 때에 디지털시대가 열리고 XT, 286 컴퓨터의 등장으로 새로운 신세계를 접하면서부터는 가지고 싶은 것과 하고 싶은 것들이 점점 더 많이 생겨났다. 그중에서 컴퓨터는 나의 가장 큰 관심사였고, 남들보다 더 잘하고 싶은 욕심에 뭉든 할 수 있을 것 같았던 열정이 더해져 수많은 시간과 노력을 할애하며 세월을 보냈다.

청년시절에는 친구들과 어울려 이런저런 잡담을 하며 소주 한잔 기울이고 싶고, 예쁜 여자와 사귀어 보고 싶고, 다른 이보다 먼저 승진도 하고 싶고, 좋은 차도 가지고 싶었다. 사업을 시작하면서 재물과 명예에 대한 욕심은 더 깊게 자리 잡은 것 같다.

성인이 되고 어느덧 중년이 된 지금은 욕망을 모두 이룰 수도 그 욕망들이 모두 이루어 진다해도 삶이 마냥 행복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가고 있다. 엄청난 부와 명예가 가져다줄 기쁨도 크겠지만, 결과가 아닌 무언가는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 속에서도 행복을 느낄 수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가장으로서 건강하게 자라고 있는 자녀들은 내 삶의 가장 큰 행복이며, 내가 가진 것 중 일부라도 무언가를 위해, 혹은 누군가를 위해 베풀면서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것 또한 즐거운 일이고 행복일 것이다.

누구나 한 번쯤은 '살아가면서 하고 싶은 것을 얼마나 이루며 살고 있는가?'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봤을 것이다. 인간이기에 오늘도 끊임없는 욕망들 속에서의 삶은 계속되겠지만, 스스로를 욕망의 울타리에 가두지 않길, 조금 더 평범하고 조금 더 편안한 삶을 살아가게 되길 바라본다.

대안이 아니다. 솔루션이다!  
강력한 솔루션 K-CAD

마이다스캐드 아키디자인

2021 봄맞이 아키디자인 반짝 프로모션



midas ArchiDesign 프리미엄 특가 안내

1년	60만원 <small>ILic, VAT 별도</small>	3년	<del>180만원</del> 140만원 <small>ILic, VAT 별도</small>	5년	<del>300만원</del> 200만원 <small>ILic, VAT 별도</small>
----	-------------------------------------	----	--	----	--

아키디자인 정가 60만원/년

\* 2017년도 이후 개설된 건축사사무소는 창업지원혜택으로 추가할인 가능! 자세한 내용은 전화문의

전화문의 | 1899-9260 홈페이지 | www.midasCAD.com